

CJ대한통운, 북미 물류센터 첫 삽... 글로벌 진출 탄력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구축 본격화
韓 기업에 수출입 판로역할 기대
29만5390㎡ 부지, 2026년 운영

CJ대한통운이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KOBC)와 함께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미 물류센터 구축이 본격화됐다.

양사의 협력 사업이 첫 삽을 뜨면서 첨단화·자동화 기술 기반의 'K-물류'가 세계 무대로 확산하는데 탄력을 받고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수출입 판로가 열릴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엘우드(Elwood)에서 해양진흥공사와 함께 민관합작 물류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케빈 콜먼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 최고경영자, 김정한 주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정성조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인프라금융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건물 10만2775㎡(약 3만1089평), 부지 29만5390㎡(약 8만9355평) 규모로 조성하는 엘우드 물류센터는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엘우드(Elwood)에서 열린 CJ대한통운·한국해양진흥공사 민관합작 물류센터 착공식에서 케빈 콜먼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 최고경영자(왼쪽 5번째), 김정한 주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오른쪽 4번째), 정성조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인프라금융부장(오른쪽 2번째) 등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2026년 상반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상온 제품을 대상으로 보관, 재고관리, 출고 등 물류 전과정이 일괄 수행하며 실시간 창고관리시스템과 보관 제품에 특화된 다양한 자동화 설비들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CJ대한통운과 해양진흥공사는 글로벌 공급망 강화 및 국가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대 6000억원 가량을 투자하는 북미 물류센터 구축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CJ대한통운 미국법인인 시카고, 뉴욕 등 물류·유통 중심지에 보

유한 총 36만㎡ 규모 3개 부지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해양진흥공사는 물류센터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센터 건설 및 운영은 CJ대한통운이 담당할 예정이다.

엘우드 물류센터는 미국 최대 화물철도 기업 BNSF, 유니온퍼시픽의 터미널이 인접해 있어 육상, 철도와 연계 시 미국 전역으로 1~2일 내 수배송이 가능하다. 넓은 배송망과 함께 CJ대한통운의 전문적인 운영기술이 더해져 향후 이 센터를 이용하는 화주들은 물류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특히 평소 북미 현지 물류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해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우 신뢰도 높은 민관 합작 물류센터를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의 협력 사업이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국가물류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뷰티, 패션, 제약, 방산 등 각 산업군에 걸쳐 특화된 CJ대한통운의 물류 전문성과 해양진흥공사의 안정적 지원이

더해져 수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물류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화주들의 물류 효율성이 극대화됨으로써 한국의 국가물류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합작 물류센터 구축에 따라 현지 투자, 고용이 이어지면서 한미 경제동맹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미국을 핵심 국가로 설정하고 활발하게 물류 사업을 펼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게인즈빌에 약 2만 5000㎡ 규모의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올해 안 본격 운영을 목표로 구축하고 있다. 켄자스주 뉴센추리에도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약 2만7000㎡ 규모로 구축하고 있으며 2025년 3분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케빈 콜먼(Kevin Coleman)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 최고경영자는 "엘우드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해양진흥공사와 추진중인 북미 물류센터 구축 프로젝트가 순항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첨단화·자동화 기반의 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북미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영토 확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햄버거 먹는 반고흐·모나리자 만나요”

크포
리아's 버거 아트 뮤지엄

'45주년' 롯데리아 팝업스토어 오픈
버거 시식 후 뇌파 측정 시그림 생성
방문객 '브레인 아트 체험' 경험 선사

미션지 스티커 채우면 기념품 주고
병뚜껑 재활용 킴링제작 참여 가능



롯데리아 팝업스토어 '리아's 버거 아트 뮤지엄' 외부.

배경으로 햄버거를 들고 있는 모습, 모나리자가 햄버거를 들고 미소 짓는 모습 등 재치있는 AI 버거 명화와 대형 오브제를 만날 수 있다. 한쪽 공간에는 '리아's 버거 아트 뮤지엄'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롯데리아 리미티드 굿즈를 판매한다. 신진 아티스트의 굿즈로 함께 판매하며 해당 수익금은 아티스트 지원에 사용된다.

2층은 '브레인 아트존'이다. 뇌파 측정기를 착용하고 제공되는 새우버거 또는 불고기버거를 먹으면, 기계에 부착된 센서가 뇌파를 측정, 해당 수치에 따른 AI 이미지를 생성해준다. 버거를 먹었을 때의 뇌파가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점이 신선하다. 네이버 사전 예약을 신청한 고객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다.

3층 '45주년 존'은 롯데리아의 45주년을 테마로 롯데리아만의 헤리티지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롯데리아 광고 작품들을 미디어 아트 형태의 오브제로 만날 수 있다. AI 미러 포토키오스크를 활용해 1979년, 1992년 등 롯데리아의

주요 이벤트 발생 시점의 분위기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타임 머신 포토존'도 설치해 타임머신을 탄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팝업 스토어 곳곳에는 소비자 참여 이벤트가 있으며, 입장할 때 받은 미션지에 스티커를 받아 햄버거를 완성하면 그에 따른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또 1층 외부에서는 병뚜껑을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킴링 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 형형색색의 병뚜껑 네 가지를 골라 안내요원에게 전달하면 고열로 가열해 녹인 뒤 킴링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당 체험 역시 네이버 사전 예약을 통해 할 수 있다.

모든 체험을 마치고 나면 이번 팝업 스토어에서만 한정적으로 선보이는 메뉴를 맛볼 수 있다. 통새우살이 가득 들어 최고의 식감을 자랑하는 '통새우살 새우버거'와 기존 불고기버거에 볶은 김치를 더한 '김치 불고기버거' 2종이다. 팝업스토어에서 소비자 반응을 보고 피드백을 거쳐 정식 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중기부, 中企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

중진공과 친환경 굴착기 개발 등 4건

중소기업이 뭉쳐 공동사업전환을 통해 새 활로 모색을 위해 추가로 나선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사업전환승인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친환경 굴착기 개발 ▲무인 자율주행 특장차 등의 사업화 ▲수소 추출기 사업화 ▲이산화탄소포집기 사업화 과제에 대해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했다. 이들 4개 과제에는 총 28개사가 동참한다.

사업전환 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 추진을 위해 계획수립, 금융, 상법상 특례, 정부 사업 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동사업전환은 대·중소기업 협력 또는 중소기업자 간의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사업전환할 수 있도록 일괄 승

인하는 제도다.

친환경 굴착기 개발을 목표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건영테크 등 7개 중소기업은 건설기계의 배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 수소 등 친환경 동력원 굴착기를 대기업인 HD현대건설기계와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참여 중소기업들은 친환경 굴착기의 각 부품을 개발 및 제조하고, 대기업은 부품 호환성 확인 및 기술지원, 품질 및 성능테스트 등을 지원해 최종적으로 친환경 굴착기에 필요한 부품들을 생산·공급한다.

화인특장 등 중소기업 10개사는 특장차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제어 기술과 IoT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연합해 무인 자율주행 특장차를 개발·생산할 예정이다. 이미 광주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해 특장차 제조, 자율주행 제어, AIoT 기술 등을 개발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2주간 '찾아가는 법률지원 간담회'

전남·부산·충북·강원 4곳 방문
해외사업 리스크차단 교육 진행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전남, 부산, 충북, 강원 4개 지역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찾아가는 법률지원 간담회'를 연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찾아가는 법률지원 간담회는 목포(14일)를 시작으로 부산·청주(16일), 춘천(23일)에서 각각 열린다.

법률지원 간담회에선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이 해외 사업 추진에 따른 리스크 차단,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특구 기업의 법·제도적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실증, 국제공동 R&D 등 해외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 외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 리스크의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률지원단은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지적재산권(IP)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구별 기술유출리스크 및 맞춤형 보안대책 등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김승호 기자